

분단 쓰기 : 반재하 웹프로젝트 <돌부채>

김솔지

와갈봉의 돌부채

돌부채는 고산지역에서 자라는 식물로, 북한의 천연기념물 제121호이다. 자강도 낭림산맥은 대표적인 돌부채 군락이다. 낭림산맥의 최고점, 와갈봉의 바위 틈에서 돌부채가 자라난다. 반재하는 <와갈봉조선범>의 프로토타입까지 완성한 후, <돌부채>를 만들었다. 스토리텔링 형식의 이 게임에서 “와갈봉조선범”이란 남파간첩들이 사용하는 웹상의 커뮤니티다. 게임의 배경을 남파간첩 커뮤니티로 설정한 <와갈봉조선범_프로토타입>에 게임 제작자이자 플레이어로 스스로 접속하면서, 작가는 사람과 함께 경계를 넘어온 물건들에서 힌트를 얻은 것일까? 반재하는 자칭 대한민국 대표 북한상품 전문 쇼핑몰의 대표로 등장해, 투자자를 유치하는 중이다.

분단이미지센터 포럼 <<2022 결산보고: 분단이미지 진품명품>>에서 반재하는 분단에 대한 리서치 및 작업에 대해 직접 발표를 하는 대신, 박근영을 퍼포머로 섭외해<! ! 긴급섭외! ! 돌부채 투자설명회>라는 퍼포먼스를 보였다. 이 퍼포먼스의 연출이자 <돌부채>대표로서 반재하는 30년 넘게 북한 상품이 남한에 유통된다는 기이한 사업체가 보장하는 수익을 설파하는 가상의 투자설명회를 진행하며, 분단을 가시화하는 한편 모호한 가능성과 불가능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참여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또한 그는 이 퍼포먼스에 이어서 <돌부채>웹사이트를 제작했다. 그러나 쇼핑몰 <돌부채>는 일반에 공개되지 못했다. 현재 “돌부채”는 ‘비공개’라는 방법으로 보호되고 있다. 현재 반재하 작가의 웹사이트에서도 <돌부채>는 “국가정보원 유권해석 이후 공개 예정”으로 표기되어 있을 뿐, 그 외에 어떠한 정보 없이 감춰져 있다. 아마도 이미지나 작업의 주제 면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일 것이다. <돌부채>는 외부로 링크되지 않은 도메인 하나를 할당해 어딘가에 머물고 있다.

유통과 분단

첫 개인전 <<죽은 시간 산 노동>>(2017)에서 SPA브랜드의 옷 제작과 유통의 경로를 따라, 반재하는 베트남의 의류 공장에 유니클로 셔츠를 모방한 셔츠의 제작을 ‘하청’이라는 방식으로, 자신의 작품 제작 및 과정에 아웃소싱을 포함해 의류산업을 제작과 결과 측면에서 모방하는 첫 번째 유통 프로젝트를 보였다. 그의 세 번째 유통 프로젝트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세계를 멈출 수도 있다>(2020)는 식품 ‘사과’의 생산과 유통화 과정에서 상품과 비상품의 경계를 가르는 자본의 거대한 힘에 주목했다. 이처럼 작가 개인의 손에 주어지는 유통의 결과인 ‘사과’나 ‘셔츠’와 같은 일상의 사물로부터 시작해서 자본주의 시스템의 핵심인 ‘유통’이 그저 ‘돈’의 논리만으로 다차원의 경계를 관통해 전지구적으로 작동하는 과정을 남한에 거주하는 동시대인의 시선으로 포착해오

고 있다.

앞서 언급한 두 작업을 진행하면서 반재하는 전지구적인 유통의 굵은 물살에 제동이 걸리는 지점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두 번째 유통 프로젝트 <<따뜻한 전쟁(Warm War)>>(2018)이 분단과 자본주의가 충돌하는 지점을 가시화하는 시도가 되었다. 북한의 이미지와 문구로 제작된 소위 ‘북한 굿즈’를 이베이 등의 해외상품구매사이트에서 구매해 수집한 북한 관련 상품을 가지고 작업을 해보려고 한 반재하에게 자본주의도 주춤거리게 만드는 ‘분단’이라는 현실이 전화를 걸어오면서, 영상 <허풍선이, 촌뜨기, 익살꾼>에 관세사무소, 국가정보원, 세관의 ‘검열’이 작가 특유의 군더더기 없는 블랙 코미디로 기록되었다. 이 작업은 반재하에게 ‘분단’이 전지구적 유통의 걸림돌이라는 사실을, ‘분단’이 이미 자신의 작업에 깊이 파고들어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했을 것이다. 택배 상자들을 언박싱하는 과정에서 국가기관으로부터 검열을 거친 ‘검열의 결과’와 ‘배송의 결과’ 사이의 차이를 직접 확인하는 기분은 어떠했을까? 분단으로부터 갈라져온 많은 경계에 대한 규정과 해석의 불명확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되었을 것이다.

돌부채의 꽃말

이어진 작업<돌부채>는 ‘북한상품전문쇼핑몰’이라는 비현실적인 바탕 위에, “UN 제재 위반률”과 같은 현실적 요소와 “땅굴 배송” 등의 불법적 요소를 결합함으로써, 그의 작업이 제시하지 않는다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 분단 시기의 상호작용을 일으킨다. 위반과 비현실적 요소는 투자자들의 수익을 증대시킨다. 분단의 특성을 활용한 땅굴 물류나 “북한에서 ‘가격이 없는’ 제품을 가져와, 평균 30,000% 마진”을 일으킬 수 있다는 투자유치 문구는 허무맹랑함과 그럴듯함 사이에서, 한 번쯤 생각해본 ‘통일 후’ 경제적 이익에 대한 상상을 일으킨다. 최근 마약을 특정 장소에 놓고 사라지는 “던지기 수법”이 <돌부채>에서는 분단을 가로지르는 운송의 대안으로 탈바꿈한다. “AI 황해 난류 분석”을 통한 “던지기 자동화”는 물리적으로 넘어갈 수 없는 영토 사이의 물품 운송을 가능케 한다. AI와 무인화로 강화된 땅굴, 던지기, 드론이라는 운송은 가로막힌 국경을 육해공 어느 곳으로도 넘어갈 수 없다는 현실을 다시 한 번 각하게 한다. 과거, 남북의 이념을 교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빠라”가 경계를 넘어왔다면, <돌부채>에 투자자들이 힘을 모아 250억이 모일 경우 “돌부채드론”을 타고 먹어보지 않은 맛있는 음식이 ‘배송완료’될 수도 있다는 것이, 반재하가 유통과 분단의 교차라는 작업 맥락 속에 설립한 가상의 사업체 <돌부채>가 분단에 대한 감각 너머에 일으키는 상상이다.

남과 북이 분단된 이래 약 613,200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다해년살이 식물 돌부채가 수없이 피었다 지기를 반복할 동안, 영토의 경계라는 단일한 경계는 유무형의 수많은 경계로 확장되었다. 분단 체제를 살아가는 당신과 나 사이로, 온전히 명확하지만은 않은 경계의 선이 지나고 있다. 반재하 역시 개인적 체험이나 사소한 사건에서 국경의 작동 방식과 냉전의 현재성을 감각한다. 작가로서 그는 전지구적인 유통 산업의 흐름을 한반도라는 국지적 요소의 특수한 상황과 교차시킨다. 동시에 이 작업에 대한 해석을 국가에 요청하며, 남북 분단과 예술의 공식적인 마찰면을 생성한다. 그는 이중으로 분단에 대해 기술한다. 우리의 일상에 돌부채가 들어올 수 있을까? 이 시점에서 돌부채의 꽃말이 인상적이다. 순응, 인내.